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집중

익산시, 안정적 자립... '경제적 자유' 주제 비대면 금융교육

익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를 위해 저축액의 2배를 지급하는 청년 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 가입자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유' 주제로 비대면 화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오

후 7시에 전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급여 관리, 월 현금 흐름표 작성, 대출금 상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원금을 통한 미래금융설계는 물론 종합자산관리 노하우까지 실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동일 교육을 3회 실시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이수 시 청년참여포인트를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한

다.

시 관계자는 "근로 청년들이 자산 관리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청년자산형성통장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목돈을 마련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자산형성통장은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의 자립 지원금을 시에서 적립해 만기 시 두 배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꾸준히 고향 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가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지어내고 있다.

'꾸준히 고향 사랑에 앞장'

군산시, 대운산업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공간에 희망나눔 전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꾸준히 고향 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가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지어내고 있다.

군산시 나운2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경 기업인 대운산업이 1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1,400만원 상당의 일회용품 13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대운산업은 지난 2007년 7월 설립한 일회용 위생장갑을 생산하는 업체로, 2020년에도 일회용 위생장갑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대운산업 이권구대표는 "지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을 하게 되었고,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공간처럼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서정석 나운2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향의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운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행복나눔 공유공간에서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 개최

읍·면 이장협의회회장·주민자치위원장 등 리더 대상

군산시는 농촌지역 10개 읍·면 이장협의회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회장, 컨설팅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군산시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백승석 센터장과, 농촌협약 추진 용역사인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의 이소진 소장이 농촌협약제도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공동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단위별 투자보다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군산시는 농촌지역 10개 읍·면 이장협의회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처음 도입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보건소, '워크온' 걷기 모바일 앱 프로그램 개설 '호응'

군산시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 걷기 프로그램을 개설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워크온'은 지난 해 6월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가입자 수가 약 3,000여명으로 걷기 실천율은 약 50%로 상승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줄어든 일상 속 건강생활운동 실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걷기 프로그램은 개인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 후 가입하면, 실시간 랭킹(걸음 수), 주간·월간 걸음 수, 칼로리 소모 정보, 개인별 데이터 분석, 건강 걷기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소는 '30만보 걷기 챌린지', '82570(6·25 70주년기념) 나라사랑 워킹 챌린지', '은파호수공원·월명공원 갈따라 걷기', '군산시간 여행 걷기 스탬프' 등 매월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미션 달성자에게는 군산사랑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강

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연말에는 군산의료원 만성질환 관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챌린지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동기부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백중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군산의 걷기 명소들을 소개하여 더욱 건강해지는 군산시를 만들고, 일상생활 속 걷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등 지역 사회에 건강한 걷기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흥봉이 봉사단, 지속적인 반찬나눔 봉사

군산시 흥남동은 흥봉이 봉사단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30가구 대상으로 반찬나눔 봉사활동 및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줄어든 홀몸 어르신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고 12일 밝혔다.

달반찬 지원사업은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30여명으로 구성된 흥봉이 봉사단이 조별로 참여, 제철 음식 3가지 반찬을 준비해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핀다.

봉사단은 지난 2000년에 통장단과 부녀회로 구성해 21년 동안 지속적인 나눔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사랑의 온기를 넣어 주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270명에게 달반찬을 전달했다.

문목희 새마을 부녀회장은 "매달 어떤 반찬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은 되지만,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 안부를 확인하고 달반찬을 전달할 때에는 기쁘



다"면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정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주는 흥봉이 봉사단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흥남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군산시보건소는 가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을철(9~11월)은 쯤쯤나무 시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군산시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저해 전광판 3개소와 마을방송, 등 홍보 중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콜로키움 온라인 개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가 오는 14일 제30차 콜로키움을 온라인 줌을 통해 연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이승환(고려대) 명예교수가 동북아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전개에 대해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또 동양철학자의 눈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전개되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강연에 나서는 이승환 교수는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대민대학 철학연구소 석사를 거쳐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유교 및 동양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유교 담론의 지형학', '형성과 수설' 등을 출간했다.

김정현 한중관계연구원장은 "두 가지 모습의 사회진화론은 근대 동북아시아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